

광주·전남 역도 전국대회 빛났다



남중부 102kg급 박영훈



남고부 67kg급 나민주



여고부 55kg급 김연호



남고부 우승을 차지한 전남역도선수단.<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 정광중·고 금 7·은 4 '번쩍'

문체부장관기 전국대회 맹활약
김연호·나민주 2관왕 올라

정광중·고 역도부가 문체부장관기 전국대회에서 각각 금메달 3개와 4개를 따냈다.

정광고 역도부는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 학생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연호(3년·55kg급)는 인상 72kg, 용상 93kg, 합계 165kg으로 인상 2위, 용상 1위, 합계 1위로 2관왕에 올랐다. 김연호는 지난 7월 열린 제31회 전국중·고·고 여자역도경기에서는 인상·용상·합계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나민주(2년·67kg급)도 인상 120kg, 용상 152kg, 합계 272kg으로 인상 2위, 용상 1위, 합계 1위를 차지했다.

김연호는 "교장선생님과 감독 선생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력을 쌓고, 더욱 기량을 끌어올

려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경빈(3년·89kg급)은 인상 139kg을 들어올려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정광고 역도부 감독 박경열 교사는 "작년 10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은메달과 동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금메달 2관왕에 오른 김연호·나민주는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고된 훈련을 이겨내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재능 있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광중 역도부도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박영훈(3년·102kg급)은 인상 90kg, 용상 110kg, 합계 200kg으로 인상 1위, 용상 1위, 합계 1위에 올랐다. 이현영(3년·55kg급)은 인상 2위, 용상 3위, 합계 3위도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정광중 역도부 감독 정동환 교사는 "앞으로도 역도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광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3관왕 5명 배출...금 15개

총 메달 24개 획득...남고부 종합우승
고흥고 신록, 한국주니어 신기록도

전남역도부가 문체부장관배에서 3관왕 5명을 배출했다. 전남역도연맹(회장 장명철)은 지난 10일 강원도 양구에서 끝난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 학생역도경기대회에 출전했다.

전남역도는 3관왕을 남중부에서 2명, 남고부에서 3명을 배출하는 등 금메달 1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2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는 금메달 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역도의 금빛 행진은 동생들이 먼저 시작했다. 김현호(완도중 3년·81kg급)가 인상 100kg, 용상 130kg, 합계 230kg을 들어올려 3관왕을, 문찬우(완도중 3년·96kg급)는 인상 100kg, 용상 125kg, 합계 225kg으로 3관왕이 됐다.

다. 신록(고흥고 3년·61kg)은 학생기록과 한국 주니어기록을 갈아치우며 3관왕에 올랐다.

인상에서 기존 학생기록인 124kg보다 1kg 더 들어올리며 125kg, 용상은 153kg이던 종전기록보다 5kg 무거운 158kg, 합계에서는 종전 기록보다 1kg 더 무거운 283kg으로 용상과 합계에서는 학생기록과 한국주니어 신기록을 세웠다.

강민우(완도고 3년·남고부 89kg급)와 이승현(전남체고 3년·109kg급)도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강민우는 89kg급에서 인상 146kg, 용상 182kg, 합계 328kg으로, 이승현은 109kg급에서 인상 160kg, 용상 190kg, 합계 350kg으로 각각 금메달 3개씩을 획득했다.

박은빈(고흥고 1년·55kg급)과 정대관(완도고 3년·109kg급)도 은메달 3개씩을 획득하는 등 남고부 종합우승에 힘을 보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체육중 태권도부 선수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체육중 태권도 문체부장관기 종합준우승

광주체육중 태권도부가 문체부장관기 전국대회(여중부)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 태권도부는 최근 강원도 고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 여중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기현(3년·라이트급)은 32강부터 준결승까지 무려 20점차 승리한 뒤 결승에서도 연장 접전 끝에 골든포인트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기현은 대회 최우수선수상까지 차지했다.

김지희(2년·페더급)는 8강전에서 3학년생을 꺾었지만, 준결승전에서 11-15로 아쉽게 패배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나정후(2년·웰터급)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육중 정인하 태권도 감독은 "코로나19로 선수들의 훈련량이 부족했지만 투지와 개인역량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끝까지 노력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대회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여대 총장기 양궁선수권 12일 개막

전국 19개 대학 220여명 참가

대학양궁 최강을 가리는 '광주여대 총장기 제23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가 12일부터 사흘간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에는 전국 19개 대학과 2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서 남녀 개인, 단체전과 사·도별 남녀선수 1명씩이 출전하는 혼성전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2011년 14회 대회부터 10회째 대회를 주관하는 광주여대는 대한민국 여자양궁을 대표하는 기보 배, 최미선, 안산을 배출한 양궁 명문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모리카와에 474만원 베풀해 5219만원 배당

도박업체 PGA챔피언십 배당률 발표
골프대회 배당금으로 역대 최고액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PGA챔피언십에서 콜린 모리카와(미국)의 깜짝 우승은 라스베이거스 스포츠 도박에도 대형 사고를 불렀다.

라스베이거스 도박업체 MGM은 모리카와의 우승에 4000달러(약 474만원)를 베풀던 고객이 4만 4000달러(약 5219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11

일(한국시간) 아후스포츠에 전했다. 최종 라운드에 앞서 MGM이 모리카와의 우승에 제시한 배당률은 11/1이었다.

4만4000달러는 MGM이 지금까지 골프 대회에서 내준 배당금으로는 최고액이라고 이 회사 공보 담당자는 밝혔다.

모리카와는 대회 직전 배당률은 33/1에 그쳤을 만큼 우승을 예상한 도박사는 많지 않았다.

MGM은 9월에 열리는 US오픈에서 모리카와의 우승 가능성은 8위로 올라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이스하키 단일팀 골리 신소정 남자실업팀 사상 첫 여성코치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역사적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수문장을 맡았던 신소정(30)이 남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대명 킬러웨일즈 지도자로 변신했다.

대명은 11일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16년 동안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골문을 지켰던 신소정이 골리 코치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대명에 따르면 신소정은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최초의 여성 코치다.

신소정은 그 자체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살아있는 역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스하키에 입문한 신소정은 14세 때인 2004년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국제 무대에 데뷔한 뒤 대표팀의 대체 불가능한 골리로 자리매김했다.

아이스하키 종주국인 캐나다의 프랜시스 자비에르 대학교에서 기량을 갈고닦은 그는 2016년엔 북미여자아이스하키리그(NWHL) 뉴욕 리베이터스에 입단해 한국 남녀 아이스하키 선수를 통틀어 최초로 세계 톱 리그에 진출했다.

캐나다와 미국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골리로 성장한 신소정은 평창올림픽에서 눈부신 선방쇼로 남북 단일팀의 역사적인 도전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2관	오케이 마담
3관	강철비2: 정상회담, 인셉션
4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5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6관	오케이 마담
9관	오케이 마담
7관 씨네커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반도 박사3: 헬리몬스터 대소동, 더 프린세스 : 도둑맞은 공주, 엘라 벨라 밉고: 친구 찾기 대작전
8관 씨네커풀	강철비2: 정상회담, 반도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달의 춤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